

소구치부의 근관치료

상악 제1 소구치에서는 60%가량이 두개의 치근을 가지고 있으며 치근이 하나인 경우에도 대부분 협측과 설측에 각각 하나씩의 근관을 가지고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밖에 상악 제2 소구치나 하악 제1, 2 소구치에서는 하나의 치근에 하나의 근관을 가지고 있다. 그러나 언제나 그 반대되는 경우가 임상에서 허다하므로 소구치부의 근관치료에서는 근관이 2 개인가 1 개인가를 확인하여 근관을 놓치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하다.

1. 치수강 개방(Access Opening).

해당치아가 Vitality가 없는 경우는 마취를 할 필요없이 직접 그림 1의 ①~⑤의 순서에 따라 치수강을 개방한다.

주의사항

① 소구치에서는 치수강은 교합면 중앙에서 협설측으로만 개방한다. 근원심 쪽은 절대로 넓혀서는

안된다.

② 개방후 외형은 그림 6 과 같다.

2. 근관의 개수 및 입구 확인.

Endo explorer를 사용하여(없는 경우 #17 explorer로서 만들어 사용가능) 그림 2에서 처럼 근관의 수와 입구를 확인함.

3. 근관형성할 길이(Working length) 측정.

단근관인 경우엔 전치부와 거의 같다. 근관이 2 개일때도 기본원칙은 그대로이나 X-Ray를 사용한 근관장측정시 2 가지의 방법이 있다.

① 협측과 설측근관 모두에 Reamer나 File을 넣고(대개 #15나 #20) 한장의 Film을 사용하여 근심에서 원심방향으로 X-Ray를 찍는 방법(그림 3 참조)

② 두장의 Film으로 Reamer나 File을 넣은 협측과 설측근관 각각에 대해서 1 장씩 X-Ray를 찍는 방법

4. 근관형성 및 근관충전

전치부에서와 동일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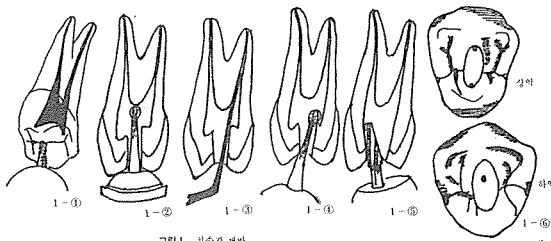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치수강 개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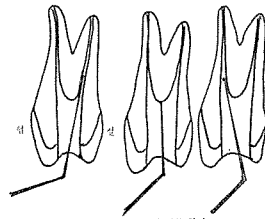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근관의 개수 및 입구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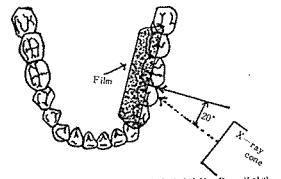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소구치의 근관형 측정시의 X-Ray 촬영법

서울市認定第89号

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
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
戰 友 齒 科 技 工 所
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
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
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
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

代表 池 榮 輝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23~23

92-8926, 93-0051